

문화

“영감의 바다인 불교서 예술과 삶의 방향성 찾았죠”

파사무용단 황미숙 예술감독

“불법에 대해 알면 알수록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교 관련 서적도 읽고 수행도 하면서 제 삶 속에 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한한 창작의 세계가 불교 안에 있음을 압니다. 불교라는 영감의 바다 속에서 제 창작의 모티브를 찾고 불교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목련경〉을 소재로 한 ‘목련, 아홉 번째 계단으로’로 주목받았던 파사무용단 황미숙 감독(54)은 지난해 부처님의 생애를 춤으로 표현한 ‘붓다, 입곱 걸음의 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다.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제작되어 지난해 5월 대중들에게 선보인 이 공연은 인간 붓다의 일생을 춤으로 표현해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안무의 영감을 얻기 위해 108배 100일 기도를 할만큼 공을 들인 공연이었고 지난해 봄을 기념해 대규모 공연으로 제작되어 화제가 됐다.

이 공연으로 황 감독은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다시 얻었다고. “사실 후원업체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모든 것들이 무산됐어요. 공연장은 이미 대관을 했고 많은 일들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연을 포기할 수가 없죠. 결국 사비로 공연을 올려야 했고 이때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봤죠.”

하지만 그녀는 이 과정 동안 불교 수행을 통해 오히려 많은 위안을 얻었고 또 다른 행복을 느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조언도 해주셨어요. 특히, 대구에 계시는 혜선 스님께서도 힘들어서 하는 저에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라고 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림선원에서 자비도량 참법으로 매일 7시간씩 기도를 했죠. 그때 알았어요. 지금의 어려움은 제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또 역경을 통해 제가 더 단단해질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파사무용단 황미숙 단장은 불교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개인적으로 큰 시련 겪었지만

자비도량 참법 수행으로 극복

〈반야심경〉 창작으로 구상 중

10월31일~11월2일 ‘붓다...’ 재공연

또한 황 감독은 이 기회를 통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다. “사실 제가 스물 다섯 이후로 한번도 자가용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공연 이후 차까지 팔아야 했어요. 요즘은 걸어다니는데 그게 또 너무 행복해요. 두 발로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더 큰 일 하라고 고동치 오는구나 생각하면 지난 일에

대해 원망할 틈이 없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황 감독은 학생들에게 철학적 측면의 불교와 수행으로서의 불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

“불교의 회향은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회향의 의미를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108배도 권하죠. 호흡에 맞추어 하는 108배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 수행에도 좋지만 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을 열심히 나누어 주는 것도 회향이니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최근 기쁜 소식이 생겼다. 바로 ‘붓다, 입곱 걸음의 꽃’이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공동기획작으로 선정되어 10월 31일~11월 2일 아라코예술극장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올해 좋은 공연으로 선정되어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공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한창 공연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의 공연을 정리하고 보완해 더 좋은 모습의 공연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황 감독은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 공연을 만들어보려는 것이 목표다. “〈반야심경〉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좋는데 이를 공연으로 만들려면 어느 부분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술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편, 황미숙 예술감독은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경희대 공연예술학과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한국무용협회 서울무용계 대상(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2006년),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시도라 예술상(2008), 공로상 환경부 장관상(2009), (사)한국현대무용협회 Dance Spirit상(2012)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tyuul.com

노승은 웃으며 꽃피는 2월을 기약하네

전쟁에 얼룩진 산사의 애처로움

이항복은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때의 문인이다. 7년에 걸친 전쟁 뒤에 용문사는 상당히 피해를 당했다. 시의 도입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래된 절에 스님은 몇 명 되지 않고 축대가 허물어져 늪은 나무가 더 애처롭게 보인 것이다.

이어서 요란한 물소리와 고요한 말소리를 대비시켜 시작 긴장을 팽창시키고, 깊은 산의 적막에 빠져 있는 북쪽과 서쪽의 풍치를 보이며 더욱 애잔한 감상을 드러낸다. 마침내 시인은 구슬픈 노래 소리에 시한수를 지을 생각마저 놓치고 만다. 구슬픈 노래는 새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의 울음일 수도 있겠다.

이항복이 들린 용문사 풍경은 장엄한 도량이 아니라 전쟁에 피폐된 서글픈 풍경으로 객을 맞았다. 그러나 객인류장한 시를 쓸 맛이 났겠는가? 그저 애잔하고 처량한 심사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수밖에.

심추임욕담(深秋林欲脫)
일모조투서(日暮鳥投棲)
시흥호무진(詩興浩無盡)
풍광자입체(風光自入題)
수성계굴곡(水成溪屈曲)
산작지저고(山作地底高)
촉마용문로(促馬龍門路)
여소월제사(如梳月在西)

가을이 깊어가니 숲은 낙엽 지는데
해는 저물어 산새는 등지로 돌아가네.
시의 흥취는 넓어다함이 없으며
풍경이 아름다워 시계가 절로 떠오르네.
물은 구불구불 흘러 시내를 이루며
말은 높고 낮아 산을 이루었네.
말을 몰아 용문산 길에 들어서니
열게 밧겜은 반달은 서쪽에 남아 있네.

항양(恒陽) 박원경(朴元謙 1491~?)의 ‘용문사에 노닐다(遊龍門寺)’라는 시다. 박원경은 김안국과 교유가 깊었던 문객으로 양평군수를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시는 양평군수 시절에 썼을 것으로 보인데, 계절은 가을이다. 용문산 풍경이 아름다워 시상이 절로 솟아나는 시인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앞에 본 이항복의 시가 시상을 떠올릴 겨를이 없음을 토로한 것과 대조적이다. 100여년 뒤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 눈앞의 풍경에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 풍경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반달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기서 보이는 반달은 서쪽에 있는 낫달일 것이다. 그리움일 수도 있고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마음이 아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튼 가을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㉔ 용문사 ㉔



용문산 한시공원에 세워진 용문팔경시비

날 산수화 같은 용문사 길을 한 마리 말을 달려 찾아드는 선비의 시심은 명징하기만 하다.

가을 풍경 속에 비친 인간만사

조선 후기 구한말 시대를 살다간 이중하(李重夏 1846~1917)도 같은 제목 ‘용문사에 노닐다(遊龍門寺)’라는 시를 남겼는데 배경이 되는 계절도 가을이다.

백절영희조도동(百折英雄迢道通)
범궁은약적림중(梵宮隱約積林中)
사위참협봉전석(四圍 險峯全石)
일망홍명수진풍(一望紅明樹盡楓)
종점산문류옥대(縱乏山門留玉帶)
차장명자대사롱(且將名字待紗籠)
경요노석기증도(更要老釋期重到)
소등산화이월홍(笑登山花二月紅)

구불구불 험한 산길 이어진 좁은 길
절은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네.
사면은 가파르고 산봉우리는 온통 바위뿔
바라보니 붉은 단풍 숲 다함이 없네.
절은 옥 장식을 한 벼슬아치가
머물기는 부족하지만
장차 이름이 알려지기를 기다리네.
노승은 또 오라고 재차 기약을 청하며
웃으면서 꽃 피는 내년 2월을 기약하네.

시의 전반부는 기존의 시편들과 다른 것이 높은 산 깊은 골에 위치한 용문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절이라는 공간과 선비의 신분적 관계는 ‘선비가 머무르는 부족’ 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버

슬하는 선비가 오래 머물 수 없음을 잠시 다녀가는 것이지만, 절은 어느 때고 유서 깊은 역사를 드러낼 것임을 말한다.

그렇게 다녀가는 선비에게 절의 노승이 하는 행동이 시적 재미를 높이고 있다. 노승은 가을에 다녀가는 선비에게 꾸밈없는 웃음을 보이며 내년 꽃피는 3월에는 더 풍경이 좋을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듯하다. 말이 필요 없는 노승과 선비의 작별 모습이 그려진다.

용문산 한시비 공원은 겸재(謙齋) 양창석(梁昌錫 1909~1983)선생이 지은 ‘용문팔경시(龍門八景詩)’가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 용문산의 여덟 가지 절경 가운데 첫 번째가 ‘용문사 새벽종소리(龍門寺曉鐘)’다.

북사장명제불종(北寺長鳴祭佛鐘)
성래만상서광능(醒來萬像曙光濃)
소성점점회호수(疎星点点廻廻樹)
숙무침침월재봉(宿霧沈沈月在峰)

북쪽 절 예를 올리는 종소리 길게 울리어
잠깨어보니 만 가지 형상 새벽빛 짙구나.
별빛은 여기저기 보이고 바람은
나무숲을 감돌고
새벽안개 자욱한데 산봉우리에 달만
걸쳐 있네.

아직 천지가 밝아 오기 전, 만 생명을 깨우는 종소리는 길게 울리는 시간 시인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풍경 속의 새 날을 맞이하고 있다. 아무래도 절은 무한 감상의 공간이다.



지난해 부처님의 생애를 춤으로 표현한 ‘붓다, 입곱 걸음의 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해 주목을 받았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구입이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소승은 다라니 매일 330독 주력 기도중 지난 6월 15일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사문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 더욱 빛나게 하라는 계시와 좌측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소승은 기도 정진중 경명 사경 다라니임을 알아차려 한자한자 정성드려 사경한 다라니를 액자에 표구하여 법당에 모시고 기도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월 27일 다시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어째서 사진과 같은 모습의 다라니를 보여주셨을까 답을 찾으려 기도정진 하였지만 그답을 찾지 못하고 대의정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그 답을 찾으려 대 신심으로 하루 500독 1,000일 50만독 주력기도와 참회 기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불자님 다라니를 각 가정에 모시고 기도에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가피 받으시어 소원성취 하세요.

기도에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액자 표구한 다라니를 모셔드리고, 전 가족의 소원성취를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하여 기도 발원을 올려드립니다.

**입재일은 8월 17일이며
1년 기도비는 한가족 30만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424번지 지하철 1호선 송현역 3번출구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도량 수정사 혜명 합장
전화 053)621-6367 / 010-4028-3622

대원문재현 선사님 66권의 저서 출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공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완전한 불공예식법
우리말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총량)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